

< 종합상식 - 2019년 10월 마지막 주 >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FRB)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여하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 발권은행이다. 1913년 발효된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창설된 이 은행은 이사회,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1976년에는 소비자자문회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은행이 회원 은행으로 되어 있다. 연준은 소비지출 증가, 강한 고용시장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 투자·수출 약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보험적 인하' 차원에서 금리 인하 행보를 이어왔다. 이번 회의에서도 저물가와 글로벌 상황을 이유로 들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정상들의 협의기구로써,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다음 달 중순 중 남미 칠레에서 열릴 예정이던 APEC은 칠레의 대규모 시위 사태 때문에 개최를 취소했다. 칠레의 시위는 빈부 격차가 큰 칠레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사회 불평등에 대한 분노로 번지며 발생했다.

● GTX(Great Train eXpress)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속도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경기도 등 대도시 광역 거점 간 통행시간을 30분대로 단축한다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이를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에 광역급행철도(GTX)를 추가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2배로 확충하고, 서울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등에는 대심도 지하도로를 뚫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 고교무상교육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했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은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에는 고2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이 모두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수업료·교과서·학교운영비의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2000원이다. 고교생 자녀를 둔 가계는 연간 160만원에 가까운 교육비를 아낄 수 있다.

< 한문 - 한자어 >

北韓 (북녘 북, 한국 한) / 南韓 (남녘 남, 한국 한)

母親喪 (어머니 모, 친할 친, 잃을 상) / 弔意 (조상할 조, 뜻 의)

< 영단어 - 토익 Vocabulary >

cancellation	취소, 말소; 폐지	finance minister	재무장관
condolence	애도, 조의	unemployment	실업, 실업률, 실업자 수
unidentified projectiles	(정체불명의)발사체	unification minister	통일부 장관
funeral	장례식	parliament	의회, 국회
conviction	유죄 선고[판결]	free high school education bill	고교 무상 교육
retrial	(재판의) 재심	weightlifting	역도